

자기를 바로 봅시다



행정의 목표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민주적인 결정 과정을 통해 실현된 가치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이 말을 중무행정에 대입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펼치는 것이 중무행정의 궁극의 목표이며,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교구본사나 중무인 등의 각 단위를 거쳐 불자 개개인들이 목표를 향한 삶을 살도록 이끌고, 지원하고, 지도하는 과정이다.

각 종단의 총무원(또는 총리관)은 행정의 최고 단위이다. 각 총무원은 그 종단이 지향

중무행정

중도 받드는 종단 운영 대사회 역할 연구 강화

하고 유지하려는 중지종과 중도들의 요구에 바탕을 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역할을 안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중무행정의 서비스 정신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와 올해 치러진 조계종과 태고종의 총무원장 선거에서 후보들은 공약을 통해 중도적으로 중도들을 받드는 종단 운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서비스의 실현은 최소한의 것이다. 많은 불자들은 "어느 종단을 막론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말한다. 소외계층에 따른 중도들의 교육과 수행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결국 지향점이 없는 행정인 꼴이다.

각 종단마다 종단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장단기 프로그램에 따라 중도를 생산하는 기획 기능을 하는 부서의 설치도 필요하다. 신도들에 이르기까지 종단의 소외계층에 대해 이해하고, 사찰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관리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중도를 생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실천 방법론을 사찰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만들어내는 중무행정의 확립이 시급하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통일토론회 내년 5월

종단협-조불련 합의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종단협의회·조선불교도연맹 대표단은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를 내년 5월 또는 6월 열기로 합의했다. 장소는 3국이 아닌 서울, 평양 또는 금강산에서 하기로 했다.

또 3월말 또는 4월초 종단협의회 실무대표단이 방북해 조불련과 토론회를 비롯한 남북불교 교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종단협의회는 밝혔다.

이번 회담에 종단협 대표로 참석한 법연스님(종단협 사무국장은 "향후 북회는 남북불교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불교서적의 모든 것이 여기서! **www.yosiamun.com**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Tel: 02) 737-0695 Fax: 02) 737-0696

“종교 자정운동 나서자”

재가연대, 공직검증제 입법 촉구...교단 모니터링 추진

지난 15일 한국종교협의회가 '새천년 종교인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각 교단의 재가 신도를 중심으로 종교자정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가 본격적인 교단자정운동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가연대는 20일 재가연대 강연회에서 최근 스님들의 잇단 비리사건과 관련, "재가 지도자와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별(법률 환경 문화재 등) 전문가로 '교단 자정 감시·지원 센터'를 내년 4월중에 설립해 종단 청정성 회복을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가연대는 "산내양자 살인사건, 대마초 및 히로폰 복용사건 등 종단을 어지럽히고 불자와 국민들에게 실망과 혐오감을 주는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종단은 선처를 요청하거나 '승복 없음'을 주장하면서 일기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종단 내적인 자정과 개혁을 지원하며 최소한의 감시활동을 펼치기 위해 교단자정운동에 나선다"고 천명했다.

재가연대는 독립 법인으로서 운영될 교단자정감시지원센터를 통해 종단 공직자의 청부(淸復) 및 공직자 검증 절차 제

정 등 입법 촉구 활동, 종단 모니터링 및 모범사찰 선정사업, 자정감시청와 개설, 각 교단 개혁을 위한 종교 NGO 협동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종교 NGO 연대사업과 관련, 재가연대는 지난 11일 천주교 우리신학연구소와 개신교의 기독교인사회연대와 모임을 갖고 3대 종교 네트워크 구성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교단자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종단의 민간단체들간에 공동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년 초에 건립회를 다시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박광서 재가연대 상임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승가의 청정성 회복을 위한 재가운동 투입과 및 교단개혁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감시와 지원기능을 병행, 종단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고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재가연대는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박사건에 연루된 교단 내 있는 승려스님을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에 임명한 것은 잘못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2000년을 보내며 한 해의 끝을 생각한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 슬기롭게 달려왔다. 두 손 모으니 저절로 고개 숙여진다. 자기의 몸을 태워 어둠을 빛으로 환영하는 승복의 종교성을 되새기며, 새해에는 사찰을 가슴마다에 숨겨 불자로서의 밝아하기를 기원한다. 사진=고영미 기자

조계종 일반사면 검토

성혜 기획실장 "내년 3월이후 가능"

94년 이후 징계자에 대한 일반 사면 실시가 검토되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 성혜스님은 19일 교계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결번자를 제외한 징계자에 대한 사면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94년 개혁종단 출범 이후 징계자를 대상으로 하지 결번자는 중형을 재징해야 하므로 불가능하고, 또 종단 사외와 관련되어 징계를 받은 스님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단의 화합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성혜스님은 "1월 초 성혜 기획실장 성혜스님은 19일 교계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결번자를 제외한 징계자에 대한 사면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면을 실시하기로 결정되면 공고와 사면 신청 접수, 심사의 절차를 거쳐서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시 시기는 1월 초 중무인 집행부의 중도에 하여 대한 신년회에 이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면 실시는 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결산총회가 열리

"불교-기독교 합심 신명나는 세상을"

종단협 회장 정대스님 예수탄생 축하메시지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21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독교인들에게 드리는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정대스님은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류가 진리를 외면할 때 오직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구원과 깨달음의 가르침을 주셨다"고 밝히고 "전세계 기독교인들과 불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일치와 화합, 자비와 사랑, 정의와 평화의 구현되는 신명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종단협의회와 조계종 총무원이 기독교 측에 축하메시지를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또 이날 오전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정성운 기자

'선도책자' 수거 안했다

국방부 차일피일 "조계종 대책 시급"

종교정책팀 내용을 담고있는 군장병 선도책자를 전량 수거하지 않았다고 지난 6일 북한 무장부가 아직까지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종교정책팀 방지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조계종에 소환된 김규태 국방부 군장병 선임법사는 "군장병들이 4월부터 10일까지 해외출장차에 동행하며 국방부 장관도 동남아 순방 중이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제가 불거진 시점이 11월 말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 책임자들의 이같은 말로는 국방부가 문제의 책임을 전량 수거 제거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조계종 대표원과 총연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조계종 대표원이 김규태 법사를 소환하면서 담당법사가 업무가 바쁘다며 일정공개를 하지 않는 등 이번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도 보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고계 일각에서는 군내에서 종교정책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기회를 통해 슬롯마수의 정신으로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대책이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이번 사건이 군법사들의 해안과 토산부에서 발생한 만큼 조계종이 앞으로 군법사에 대한 규율과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nia.com)

새천년의 발원

손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용가동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빨강)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빨강) (노랑) (오색) (차걸이등)

팔모조림등

(빨강) (노랑) (주련등 빨강) (주련등 노랑) (육각등)

만월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찬덕 연등제작사